

특집

낙농육우산업의 산학협동

산학협동의 필요성

김남홍
목회회장

1. 머릿말

“산학협동”이란 말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다. 그러면서도 산학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계속적으로 산학협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상계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산학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학계와 산업체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산업체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또 연구하여 그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산업체를 이끌고 있다. 학계가 산업체의 방향제시를 하며 또 산업체들의 제반여건에 대하여 이론을 뒷받침 하여 준다. 그러므로 산업체에서는 학계에서 발표한 각종 연구결과를 자기들 사업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를 정하여 추진한다.

학계와 산업체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란 관념이 없다. 다 같은 것이다. 계란과 닭에 비유할 수 있을까. 먼저고 나중이 없고 하나인 것이다. 산학협동이 잘 되면 학계에서도 더 열을 내어 연구하게 되고 산업체에서도 학계의 이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이 우리 농업계, 더 축소하여 우리 축산계에서는 산학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업계가 학계를 이용하려들지 않으므로 산학협동이 안된다고 한다. 어느 곳이 먼저나를 따지지 말고 서로 산학협동을 하겠다는 신념만 있으면 산학협동은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2. 산학협동의 의지를 서로 갖자.

우리 축산계는 유가공, 사료산업 그리고 육가공산업을 빼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다. 착유를 위한 낙농목장, 비육을 위한 비육목장 등이 있으나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다. 물론 전체를 묶으면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목장단위로 보아서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영세하다. 산학협동은 학계와 산업체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영세한 목장들이라도 산학협동의 대상은 된다.

경남지역에서는 경상대학 교수들과 낙농가들이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목장도 순회하면서 교수들이 목장지도를 하고 있다. 교수들이 지도하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아직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산학협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학계는 학계대로 열심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종 인쇄물을 통하여 발표는 되고 있으나 양축가들은 그 연구결과를 실용화하는데는 극히 일부에 국한하고 있다. 즉 연구를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여서인 것이다. 물론 학자는 열심히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얻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용이 되지 않는 연구를 하고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그 결과는 연구보고서의 몇 페이지를 차지하는데 만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는 입장이라고 하여 돈을 받는 것도 아니며 모임에 소요되는 경비도 회비제로 하여 교수들이 동등하게 회비를 낸다는 것이다. 더구나 산학협동을 위해 교수가 자기의 사재까지 털어가며 모임을 주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배울 바라고 본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교수들이 무료봉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대단위목장 그리고 축산을 사업으로 하는 기업체에서는 일정한 용역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경상계에서는 기업체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학계에 또는 전문가에게 용역비를 지불하고 자문을 받고 있다. 때로는 진단비로, 교통비로 자문료로 일정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수시로 자문을 받는다. 이로써 기업이 발전하고 또 기업이 발전하므로써 자문을 맡은 학자, 전문가도 상호 더욱 발전하게 된다. 학자, 전문가들도 그 지식을 활용하므로써 더욱 실용성 있는 지식으로 다듬어지게 된다.

그런데 축산계의 기업에서는 학계,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 혹은 자기 기업은 학계 또는 전문가들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기업외의 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자기의 실력을 과신을 하기도 한다. 기업체에서 학계, 그리고 전문가와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학계도 현장감에 익숙하여져서 더 많고 유익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가 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 축산계에서는 학계의 자료 그리고 지식을 활용치 못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신청하였다는 내용을 보면 독자적인 기관, 개인이 한 것 보다는 연대하여 연구한 것이 많음을 보아서도 산학협동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에 농업관련대학도 많으며 또 연구기관도 많다. 이런곳에 있는 학자의 많은 분들은 현장감이 없다. 현장을 접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들 학자들이 현장을 접하면 현장에 맞는 여러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이 동기부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야 한다. 기업체에서는 기업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 연구용역을 주어 학자들을 현장으로 끌어드려야 하고 우리 양축가들은 용역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기회에 학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서로 의견을 타진하는 것도 좋다. 강사로서 초청도 하고 여러사람들 앞에서 강의케하여 그 지식을 이어받기도 하고 개별로 수 삼명씩 찾아가 의견 지식을 주고받는 기회도 좋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식을 학자에게 전하고 학자가 그 지식을 채 연구하여 여러분들에게 더욱 새로운 지식을 심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산학협동”은 우선 접촉하는데서 시작된다. 축산관련단체 그리고 축산인들은 학자와의 접촉을 부담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학자들에게 응분의 대우를 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응분의 대우에 대한 기준도 모르고 있으므로 응분의 대우가 소홀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학계인사와의 접촉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므로 산학협동의 계기마련이 어렵다. 학계와 기업체, 그리고 양축가들 사이에 격이 없으면 서로 실정에 맞게 주고 받으면 죽한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벽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 벽을 우선 무너뜨려야 한다. 축산관련교수, 축산관련연구원의 머리, 즉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 활용은 산학협동에 의하여서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아직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산학협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학계는 학계대로 열심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종 인쇄물을 통하여 발표는 되고 있으

나 양측가들은 그 연구결과를 실용화하는데는 극히 일부에 국한하고 있다. 즉 연구를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여서인 것이다. 물론 학자는 열심히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얻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용이 되지 않는 연구를 하고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그 결과는 연구보고서의 몇 페이지를 차지하는데 만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축산물은 금년부터 수입이 개방되고 있다. 2001년이면 아무런 조건없이 개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개방화는 경쟁력 제고를 완비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축산관련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어야 한다. 또 협동하여 머리를 짜낸 것을 실용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서로 미루다가는 양측가는 도산하고 양측가 없는 상태하에서의 축산관련학자들도 것은 선 후는 있지만 이 사회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학계에서도 양측가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몇번만 양측가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후는 자주 접할 수 있게 된다. 양측가들의 요구에 의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떤 교수는 축산단체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들의 두뇌를 이용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보았다. 학계에서도 이 이상 어느 누구가 자기들의 두뇌를 이용하기 위한 의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산학협동을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로 산학협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무턱대고 접촉을 시작하면 산학협동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서로를 알면 산학협동은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무조건 어떤 계기를 마련하여 서로 접촉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황으로 산학협동을 후로 미룰 수는 없다. 서로들 마음을 비우고 다가 가자. 산학협동만이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산학협동은 쉽게 이루어진다. 산학협동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유지발전 시키자.



개방일정이 촉박하며 양측가들도 마찬가지다. 서로가 활동을 하여 서로를 연결토록 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2000년까지 우리의 두뇌를 총동원하여 개방화에서도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계속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물론 그 방안이 전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방법들이 제시되었고 그 제시된 방법들이 하나 둘 실용되는 것도 있고 실용성이 없어서 폐기되는 것들도 있다. 더욱 현실에 맞는 방안만이 응용이 되는 것이므로 가능한한 응용성이 있는 방안 제시가 중요하다.

산학협동을 더 지체시킬 수는 없다. 우리에게 좋은 두뇌가 많은데 산학협동력의 결여로 그 두뇌를 그대로 방치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또 우리가 현재와 같이 축산업이 영위되고 있을 때 더욱 좋게 하기 위한 산학협동이 필요한 것이다.

3. 맺음말

산학협동을 어렵게 생각하고 뛰어 들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축산물은 세계와의 경쟁이다. 국내 동업자간에, 또 국내 유사업종간의 경쟁은 이미 수년 전의 일이다. 이제는 세계의 동업종간 또는 세계의 유사업종간의 피나는 경쟁을 하도록 되었다. 경쟁에서 이기면 개인도 살고 국내 축산업도 유지발전이 될 것이며 경쟁에서 지면 개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학계의 문제이자 양측가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학계의 이론이 뒷받침된 기술은 축산관련산업의 현장감을 잘 조화시켜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

산학협동을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로 산학협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무턱대고 접촉을 시작하면 산학협동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서로를 알면 산학협동은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무조건 어떤 계기를 마련하여 서로 접촉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황으로 산학협동을 후로 미룰 수는 없다. 서로들 마음을 비우고 다가 가자. 산학협동만이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산학협동은 쉽게 이루어진다. 산학협동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유지발전 시키자.